



# 파주역사

이해준\_공주대 사학과 교수





임진강 주변 위성 사진



## 구석기와 청동기시대의 유적

임진강은 선사시대 파주 지역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 생명수이자 젖줄이었다. 임진강 강줄기를 따라 마련된 터전은 대개 낮은 구릉성 산지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임진강은 파주 지역의 서북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문산천과 사천, 공릉천, 문산천, 늘노천 등의 주요 지천 곳곳에 문화유적들을 남겼다. 구석기 유적은 대부분 임진강가에 분포하고, 신석기와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적과 유물은 이들 셋강 옆의 구릉지대에 분포한다.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일제시대 때 문산에서 뎀석기가 조사되었고, 그뒤 1978년 연천 전곡리에서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외에도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의 주월리, 가월리, 금파리 등에서 다양한 구석기 유적이 조사되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유적과 유물이 찾아지고 있다. 임진강 유역의 파주 지역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주월리, 가월리 유적(사적 제389호)과 금파리 유적이 있다.

주월리, 가월리 유적은 기원전 4~5만 년 전의 것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한국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이고, 이곳에서 출토된 접합유물과 금파리 유적에서 발굴된 옹돌이 모양의 구덩이는 사냥이나 주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출토된 석기는 잔손질된 것이 거의 없고, 그 제작 수법상 연천 전곡리 유적과 비슷하여 한국 구석기의 표준 유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파주 지역의 당동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집터와 야외 화덕자리가 발굴되었다. 이외에도 옥석리 유적에서 움 유구가 발



주월리, 가월리 유적 출토  
주먹도끼

견되었고 울포리, 교하리, 주월리, 육계토성, 선유리, 다율리, 봉일천리 유적 등지에서는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되었다. 당동리 유적의 집터는 평면 생김새가 모죽임 네모꼴로 다른 지역에서 흔히 발굴된 둥근꼴과는 다르다.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임진강 언저리의 신석기 시대 집터가 지닌 하나의 특징일 가능성이 많아 앞으로 다른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외 화덕자리는 임진강 유역에서는 처음 조사된 것으로, 파주 지역 신석기 시대의 문화 전통과 당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청동기시대와 관련해서는 옥석리 유적이 유명하다. 일본인 학자들은 ‘금석병용기’라는 애매한 명칭을 쓰면서 한반도에는 청동기시대가 없으며 석기와 철기가 공존하는 금석병용기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이자 독특한 성격을 지닌 간돌검이 세형동검을 모방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옥석리 유적의 발굴은 일제가 부정했던 청동기시대가 한반도에 실재했음을 알려주고, 금석병용기의 오류를 수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65년 발견된 옥석리 유적은 고인돌과 그 밑의 집터 유적이 층위를 이루는 층위유적이었고, 집터에서 출토된 솥을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2590bp로 밝혀졌다. 이는 간돌검(磨製石劍) 조형의 변화 과정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임진강 유역의 청동기 문화는 지리적 위치와 문화의 전파, 교류 관계에서 매우 주목된다. 교하리, 덕은리 옥석동, 식현리, 당동리 등에서 발견된 토기와 석기는 중부 지방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동북 지방의 무문토기, 공렬문토기, 단도마연토기와 서북 지방의 각형(괭이형) 토기 문화의 영



당동리 유적 전경(위)과 옥석리 비호 고인돌(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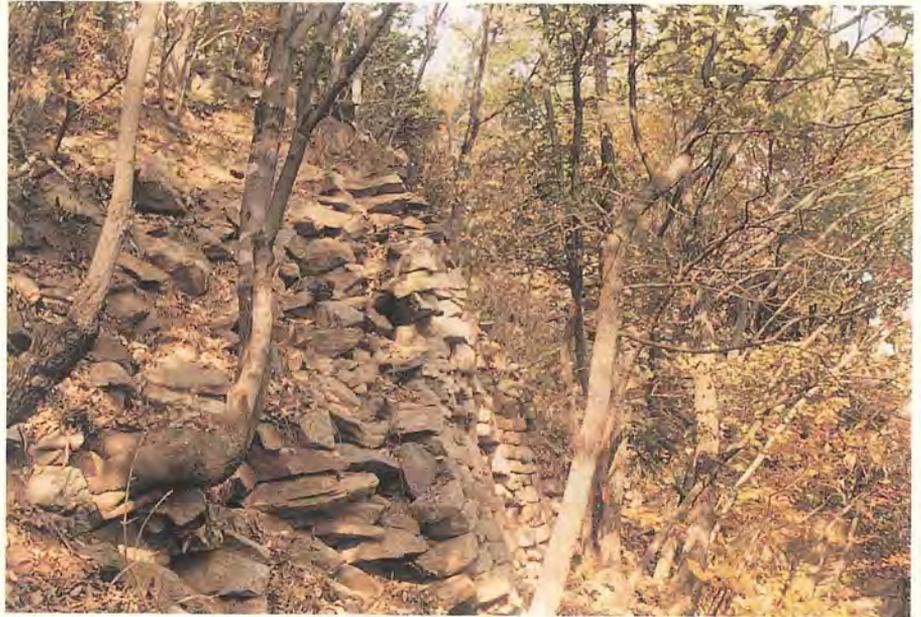
향을 받아 혼합 발전한 것이다. 즉, 파주 지역은 청동기 문화를 한강 유역에 전파시킨 매개 지역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의 파주, 그리고 감악산** 파주 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변천 과정을 겪어왔다. 삼한시대에 파주 지역은 마한에 속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최초로 파주 지역을 장악한 것은 백제의 근초고왕(346~375)이었다. 당시 파주 지역에 있던 백제의 군현 이름은 술이홀(파주), 천정구(교하), 난은별(적성), 야아(장단) 등으로 기록된다. 그러다가 392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현재의 오두성으로 추정되는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때 임진강 이북의 10여 성도 빼앗았다.

파주목의 형성 과정

국가 지역	고구려	통일 신라	고려	조선
파주 坡州	파해평사현 波害平史縣 술이홀현 述彌忽縣	파평현 坡平縣 봉성현 峰城縣	파평현坡平縣(장단군長湍郡→개성부開城府 예속) 봉성현峰城縣(양주楊州 예속) →서원현瑞原縣	서원군瑞原郡→파평현坡平縣과 합 원평군原平郡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 →파주목坡州牧
교하 交河	천정구현 泉井口縣	교하군 交河郡	교하군 交河郡	교하군交河郡→교하현交河縣→파주坡州 편입
적성 積城	칠중현 七重縣	중성현 重城縣	적성현積城縣(장단현長湍縣→개성부開城府 예속)	적성군積城郡→적성면積城面
장단 長湍	장천성현 長淺城縣	장단현 長湍縣	단주湍州→장단현長湍縣	장단군長湍郡 4개 면 파주 속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이 지역을 놓고 계속된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백제의 문주왕이 웅진(공주)으로 천도하는 475년 어간에는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 장수왕은 이곳에 파해평사현, 술이홀현, 칠중현, 천정구현, 장천성현의 5개 현을 설치하였다. 그후 한강 유역을 공격 목표로 정하고



칠중성의 흔적

계속적으로 백제, 고구려와 대립하던 신라는 진흥왕 때에 이르러 한강 유역 점거 후 마침내 파주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삼국 통일 시기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다시 한 번 적성 지역을 놓고 쟁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칠중성이었다.

임진강 지역의 역사에 있어서 칠중성은 매우 주목되는 유적이다. 칠중성은 시기를 달리하며 여러 차례 개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북서쪽 3km 지점의 육계토성, 남쪽 설마천 주변의 감악산 보루와 무건리 보루 등은 칠중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략 거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인근의 아미성과 이잔미성(장좌리보루), 덕진산성과 호로그루, 당포성과 은대리성 등도 칠중성, 또는 칠중하로 대변되는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칠중하는 이미 온조왕 때부터 전투지로 기록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왕 18년 겨울 10월, 말같이 습격해 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그들과 싸웠다. 추장 소모를 생포하여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생매장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칠중성 지역에서는 신라와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와 당나라가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문무왕 때에는 칠중성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문무왕 2년(662)과 문무왕 8년(668)의 싸움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이후 시기의 문무왕과 무왕 11년, 13년, 15년의 기록은 당나라와 싸운 기록이다.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칠중성에서 공을 세운 필부匹夫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열전은 대부분 기라성 같은 영웅들의 잔치상이지만, 유독 칠중성에 관한 기사에서 필부가 등장하는 것은 이곳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은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태종무열왕 때의 현령 필부에 대한 기록이다.

필부는 사랑 사람이다. 아버지는 존대<sup>尊大</sup> 아찬이다. 태종(무열왕)대 왕은 백제와 고구려와 말같이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 함께 우리나라를 침탈하고자 계획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충성스럽고 용맹한 인재로서 그들에 대한 방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구하던 나머지, 필부를 칠중성 관하의 현령으로 삼았다.

그 이듬해 경신년(660) 가을 7월에 왕(무열왕)이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자 고구려가 우리를 미워해, 겨울 10월에 군사를 몰아와 칠중성을 에워쌌다. 필부는 한편 지키고 한편 나가 싸우기를 20여 일 동안이나 하였다. 적장은 우리 사졸들이 모두 열심히 싸워 자기 일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보고, 손쉽게 함락시킬 수 없겠다고 여겨 문득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때 역적 대나마 비삽(比歙)이 몰래 사람을 보내 적들에게 알리기를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힘이 다했으니 만약 공격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항복할 것이라 하니, 적들이 드디어 다시 공격하였다. 필부가 그 사실을 알고 칼을 빼서 비삽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던지고, 곧 군사들에게 포고해 “충신과 열사는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할 일이다. 우리 성의 존망이 이 한 번 싸움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곧이어 주먹을 휘두르며 한 번 호통하니, 병든 이들까지 모두 일어나 앞을 다투어 성 위에 올라갔으나 사기가 꺾이고 다해 죽고 다친 이가 반절이 넘었다.

적들은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성을 공격하면서 들이닥쳤다. 필부는 상간(上干), 본숙(本宿), 모지(謀支), 미제(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해 맞서 활을 쏘았지만 날아오는 화살이 빗발 같아 온몸이 뚫리고 터졌으며, 피가 흘러 발꿈치까지 적시니 그만 쓰러져 죽었다. 대왕이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하게 통곡했으며, 그에게 급찬의 관위를 추증해 주었다.

칠중성과 호로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칠중성에 오르면 남북 분단의 현상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칠중성 건너에 북한 땅이 가까이 보이며 호로고루 건너에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한다. 또 이 일대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 전차부대가 도하하고, 인해전술을 펼치며 중공군이 건너왔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강의 수심이 제일 낮은 곳이어서 선택되었다고 한다. 당시, 칠중성에서는 영국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한바탕 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곳을 캐슬고지(일명 148고지)로 명명했던 영국군은 3일간의 격전 끝에 800여 명의 부대원 중 50명만 살아남거나 포로가 됐을 정도로 궤멸당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경덕왕 때, 파주 지역의 군현 지명을 대대적으로 바



칠중성 출토 유물

됐다. 파주 지역의 경우는 파해평사현이 파평현으로, 술이홀현이 봉성현으로, 칠중현이 중성현으로, 천정구현이 교하군으로, 장천성현은 장단현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비록 고려시대의 유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시기에 세워진 신라의 순수비로 추정되는 비가 파주 감악산에 남아 있다.

감악산비의 존재는 미수 허목許穆(1595~1682)이 남긴 문집 『기언記言』(권 27)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감악산 신사에 대해 허목은 “어른 키 세 배되는 석단石壇이 있고 그 위에 산비山碑가 서 있다. 너무 오래되어선지 글자가 모두 지워졌다”고 쓰고 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감악산에는 중사인 감악신사와 설인귀를 모시기 위해 민간에서 세운 사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사 이래 천연의 방어 요새지였던 감악산은 파주, 양주, 그리고 연천의 3개 군 경계에 걸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신라 이래 소사小祀로 섬겨 제를 지냈음이 『삼국사기』(32권, 지誌 1, 제사祭祀)에 기록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신라시대에는 어떤 형식으로 제를 지냈는지 불분명하지만 고려시대에 와서는 사당을 지어 별도의 건물에 모셨던 듯하다. 『고려사』에 따르면, 현종 2년(1010)에는 장단까지 쳐들어온 거란 병사들이 감악산의 신사神祠를 보고 기마병과 말들이 서 있는 것으로 여겨 감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신사를 수리하라고 명을 내렸고, 또한 공경과 사대부와 서인이 모두 직접 감악산에 제사를 지내자 이를 금지하기도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 21, 예고禮考 8; 『고려사절요』 제23권).

『신증동국여지승람』(권 11, 적성현) 사묘조에도 신라 때부터 감악산에서 당나라 장수 설인귀를 산신으로 모셨고, 조선시대에도 명산이라고 하여 감악사에서 중사中祀를 지내게 하여 봄, 가을로 향축을 내렸다고 하였다. 조선 개국 초기인 1393년(태조 2) 1월 예조에서는 전국 명산에 작위를 내렸는데, 감악산은 이때 삼각산, 백악의 산들과 더불어 호국백護國伯에 봉작되었다. 또한, 1430



감악산비

년(세종 12) 8월 예조에서는 각도 산천의 단묘(壇廟)를 돌아보고 “적성현 감악산신은 위판이 없고 이상(泥像)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신(主神) 부처 양위와 자신(子神) 부처를 아울러서 모두 6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의 진흙상은 바로 설인귀의 소상이었다.

**고려시대의 문화 유적**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지세에 있어 파주의 동쪽과 남쪽은 고갯길이 발달하였고 북쪽은 나루터(津渡)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나루가 임진나루인데, 서울 방면에서 임진나루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창릉천과 공릉천에 의해 형성된 계곡부를 연결하는 혜음령 고갯길이었다. 이 길은 고려 중기 이후, 즉 남경이 건설된 후로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해 조선시대까지 서울에서 개성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길로 남아 있었다. 개경에서 파주를 거쳐 남경(서울)으로 통하는 지름길이었으므로 여행자들은 양주로 우회하기보다는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혜음령 고갯길을 통과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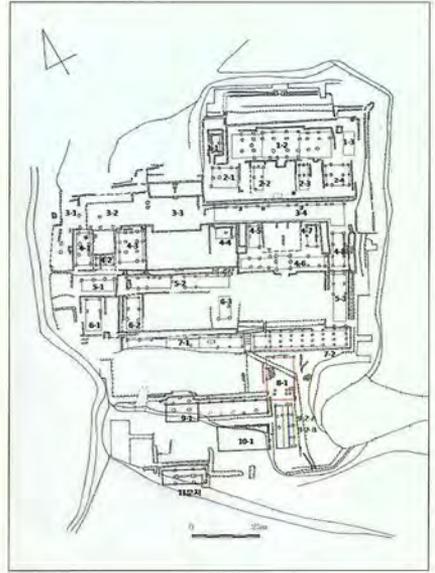
김부식이 편찬한 「혜음사 신창기(惠陰寺新創記)」(『동문선(東文選)』, 권 64, 기)에 의하면, 혜음령은 개경에서 남경(서울)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탓에 사람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경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곳은 지형도 험하고 주변에 민가도 없는 오지였을 뿐만 아니라 산짐승과 도적이 자주 출몰하는 등의 위험이 따랐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무기를 갖추지 않고서는 산을 넘을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통행이 불편했던 것이다. 혜음령 고갯길에 고려시대의 파주 문화를 상징하는 혜음원(惠陰院)이 창건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게다가, 남경(서울)에 신궁(新宮)이 세워지고 남경 건설이 이루어지는 숙종 6년(1101) 어간의 왕의 순행길은 개성, 장단, 파주(봉성현), 혜음령, 고양, 서울을 지나는 길이었다. 예종 대에도 왕의 남경 순행은 계속되었고 역시 파주에서 혜음령을 거쳐 고양을 지나는 길이 이용되었다. 국왕의 남경 행차가 빈번해지면서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는 필요성 또한 있었다. 지금의 파주시 용미리에 설치된 혜음원에 나중에 행궁이 설치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혜음원은 처음부터 국가 주도로 설치된 시설은 아니었다. 당시 고려 왕실은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 문제를 불교 사원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극복할 구상을 한 사람이 바로 이소천이다. 왕의 지시를 받은 이소천은 혜음원 창건 과정에서 묘향산으로 혜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혜관은 혜음원의 창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리고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혜관이 개입하면서 혜음원의 공사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혜음원의 설계와 시공은 승려들이 담당했고, 2년이 지난 1122년 2월에 드디어 완성을 보게 되었다.

혜음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 법당을 비롯한 사찰 구역과 숙박·취사 시설을 중심으로 한 원(院)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것이다. 왕의 행차에 대비해 혜음원 한쪽에 국왕을 위한 별도의 행궁을 건축한 것은 물론이다. 혜음원의 완성 후 혜음령으로의 통행은



혜음원지 발굴지 전경과 현황도

아주 편리해졌고, 혜음원은 각지에서 후원자들이 기부한 쌀을 가지고 죽을 쑤어 여행자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후원이 줄어들었고 혜음원은 재정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 역시 이소천이었다. 혜음원 창건 후 20여 년이 지난 무렵, 벼슬에서 물러나 거사를 칭하면서 혜음원에 머물러 있던 그의 노력으로 재정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최대 후원자인 인종과 인종비 임씨는 혜음원을 왕실 구호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왕실에서 혜음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1144년경부터는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념하여 당대 최고의 문신인 김부식이 「혜음사 신창기」를 편찬하게 되었다.

혜음원터에 대한 발굴 조사는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혜음원은 산지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지의 궁궐이나 사원처럼

정연하게 조성되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즉,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혜음원의 건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건물의 형태나 규모도 다른 것에 비하여 크고 장엄하며 조경에도 공을 들였음은 물론이다. 혜음원은 국왕의 행궁이 있던 만큼 격식을 차려서 잘 지은 건물이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도 최고급품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혜음원터는 개성의 고려 궁궐터 만월대와 더불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건물지라 할 수 있다.

혜음원터와 함께 고려시대 파주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보물 제93호로 지정된 용미리龍尾里 석불입상石佛立像을 들 수 있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8번지에 소재한 이 석불입상은 거대한 천연 암벽에 2구의 거대한 불상을 조각한 것이다. 머리에 돌 갓을 쓴 이 석불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탓에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 오히려 불성佛性보다 세속적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불상이다. 왼쪽의 둥근 갓을 쓴 불상은 목이 원통형이고 두 손으로 가슴 앞에서 연꽃을 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의 불상은 4각형 갓을 쓰고 있는데 합장한 손 모양이 다를 뿐 신체 조각은 왼쪽 불상과 같다.

이 불상에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고려 선종(재위 1083~1094)은 자식이 없어 원신궁주元信宮主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왕자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걱정에 잠긴 궁주의 꿈에 어느 날 두 도승이 나타나서 “우리는 장지산長芝山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이다. 매우 시장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잠에서 깬 궁주는 그 꿈을 왕께 아뢰었고, 왕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 사실을 알아보게 하였다. 왕이 보낸 사람은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음을 보고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왕은 즉시 이 바위에 두 도승을 새기게 하고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다. 그러자 그해에 왕자 윤(한산후漢山候)이 태어났다고 한다.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는 고려시대의 무덤이 있는데, 이것은 1991년에 도



용미리 석불입상

굴 신고를 받은 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것이다. 이 무덤은 길이 394cm, 너비 202cm, 깊이 103cm 규모의 장방형 석실 안에 돌덧널(石槨)을 마련하고 그 안에 나무로 된 목관을 안치하였다. 4벽에 커다란 판석을 이용하였고 남벽에는 정방형에 가까운 판석 1장으로 문돌을 만들어 마감하였다. 천장은 방형의 큰 판석 2장과 장방형의 큰 자연석을 사용해 덮었고, 내부 바닥에는 정방형 민무늬 벽돌(無文塼)을 전면에 깔았다.

당시 대부분의 유물이 도굴되었으나 고려시대의 동전 다수와 수정구슬·토기편·자기편 등이 나왔고, 특히 묘지석이 수습되어 축조 연대와 무덤의 주인

공을 알아낼 수 있었다. 축조 시기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52년이고 주인공이 권준權準이다. 권준은 고려 충선왕에서 공민왕 즉위 무렵까지 활동한 고위 관료로서 성리학 도입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권부權溥의 아들이다.

이 고분은 벽화로도 유명하다. 네 벽의 관모서리 위에는 십이지신상을 나타낸 인물상이, 천장의 중앙 돌판에는 그 안에 북두칠성과 삼태성, 또 하나의 별, 구름 두 덩어리가 있는 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별들은 검은 바탕에 흰 동그라미로 나타난다. 동·서벽에는 입구에서 북쪽을 향해 각각 26cm의 간격을 두고 일렬로 5인의 인물상이 있다. 벽화는 음곽선으로 먼저 윤곽을 잡고 그 위에 묵선墨線으로 그렸는데, 얼굴 세부와 손에 쥐 홀芻 등은 직접 묵선으로 얼굴의 코·입술·관모 등을 그린 다음 붉은 채색을 한 것이다. 침수에 의해 대부분의 벽화가 지워졌으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북벽의 인물 모습은 비교적 뚜렷하다.

**고려시대의 가문들** 성현成愼(1439~1504)이 쓴 『용재총화慵齋叢話』를 보면 안목安牧(1290~1360)이라는 인물이 고려 말에 파주 농토를 크게 개척한 사실이 적혀 있다. 성현은 안목의 증손이자 안원의 아들인 종약從約(1355~1424)의 외손자였다. 안목은 충숙왕 2년(1315)에 등과하여 고위직을 역임하고 만년에 파산坡山의 서교西郊에 은둔하면서 개간 사업을 벌였던 것 같다. 『용재총화』에 의하면, 파주군 서교에 있는 안목의 농장은 손자인 안원 때에 이르러 가장 넓은 판도를 이루어 “안팎으로 차지한 밭이 무려 수만 경頃이나 되고 노비도 백여 호나 된다”고 하였다. 안원安璵은 황폐되어 사람이 살지 않던 파주의 서교를 개간하여 광활한 농장과 장사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목이 농장을 개간하였다고 전해지는 파주 서교는 오늘날의 문산읍을 포

함한 탄현면 일대로 추정된다. 농장의 위치는 대체로 파주목의 서쪽, 즉 오늘날의 장포뜰에 해당하며 문산을 내포리 장포동에 별서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에는 방축리(동)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하천을 중심으로 순흥 안씨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안목과 안원의 일화는 여말선초에 임진강의 수려한 풍광을 중심으로 도처에 수많은 권문세가들의 별장과 별서, 별업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의종 때에 왕이 귀족들과 와서 노닐었다는 이담의 별장과 여말 이색의 별장이 있었던 곳도 바로 장단이였다. 이는 중앙 집권화 정책의 결과로 힘 있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든 탓으로 보인다. 개경에 거주하던 귀족 관료들은 녹봉 이외에 수조권을 받아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들의 경제적 지배력의 밑바탕에는 민전이 있었고, 경기 지역에는 때때로 농장의 형태로 관리되는 이들 민전이 넓게 분포해 있었다.

파주를 대표하는 고려시대의 주요 가문은 서원 염씨(봉성 염씨), 장단 한씨, 파평 윤씨이다. 서원 염씨의 시조인 봉성 호족 염형명은 삼한공신이었고, 태조 유명 시에 박수문·왕규와 함께 고명재상이었던 염상 또한 이 집안의 인물로 추정된다. 서원 염씨는 명종 때 재상이었던 염신약 이후로 더욱 번성했다.

장단 한씨는 고려 건국 이전부터 왕건 세력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었던 강력한 호족으로 왕건의 모후인 위숙왕후가 장단 한씨였다. 한언공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목종 때 시중이 되고 사후에는 목종 묘에 배향되었으며, 그의 공으로 장단은 단주로 군호가 승격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두 손녀는 정종의 왕후가 되어 척족과 사환을 겸한 명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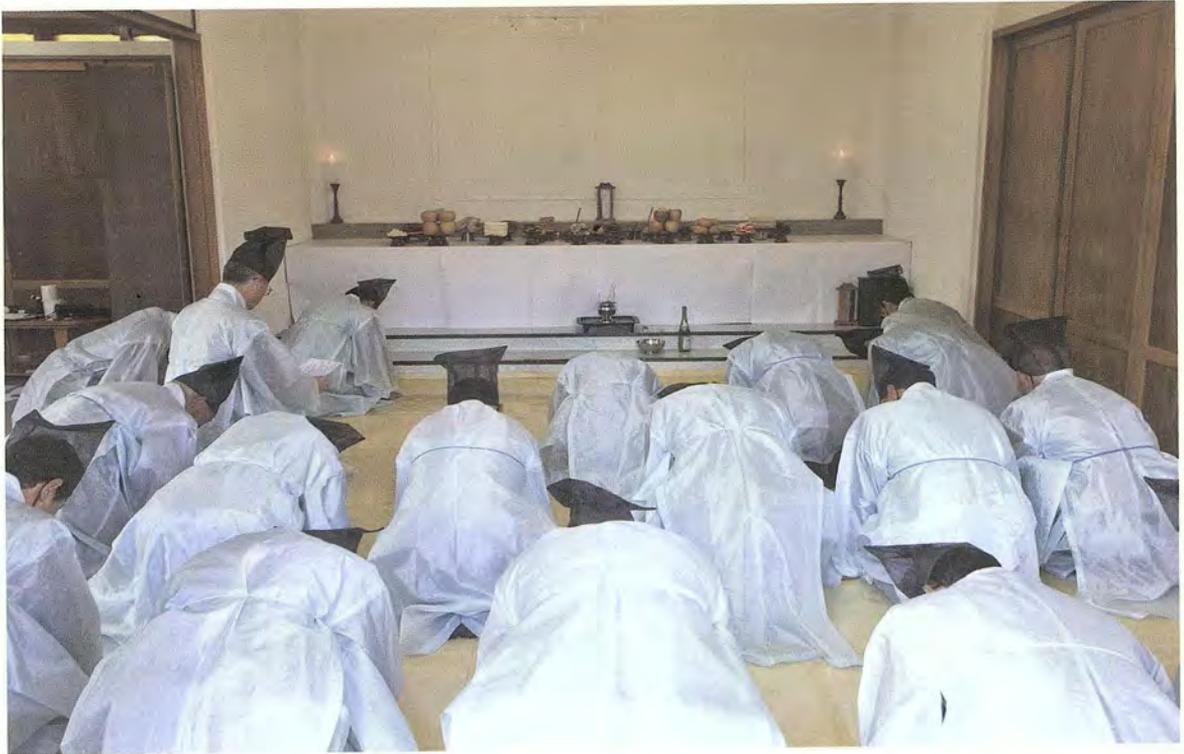
한편, 파평 윤씨의 중흥조인 윤관은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인주 이씨의 80여 년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숙종이 신진관료 세력을 포용할 때 선택된 대표적 인물이었다. 당시의 신진관료 세력은 이후 숙종의 왕권강화 정책



윤관 장군의 영정이 봉안된 여충사

을 추진하는데 조력하였으며, 윤관이 죽은 뒤 개혁 정치를 지속한 인물이 바로 장단리 한안인 집안의 한취와 윤관의 손자인 윤인침이었다. 그러나 파주와 장단을 대표하는 이들 세력은 1170년(의종 24)의 무신란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고려 후기에 이르면 이른바 부원세력으로 불리는 새로운 권문세족이 출현하는데, 파주 지역에서는 교하 노씨가 이에 해당했다. 이 가문은 중시조 노영수가 조인규의 사위가 되면서 일약 부원세력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노영수의 아들 노항은 좌정승에 올랐고, 손자인 노진의 딸은 공양왕비가 되기도 하였다.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로 세력이 꺾이긴 하였으나 조선 초까지 사환을 계속하였다. 봉성 염씨도 염세충이 조인규의 사위를, 염제신이 공민왕 때



교하 노씨 시제

시중을 역임하면서 세력을 유지하였으나 조선 건국과 함께 몰락하였다.

**조선시대의 연행과 능행** 파주는 고려시대 때 개성과 한양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혜음령이나 혜음원이 생겨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조선의 건국 이후에도 파주는 여전히 교통의 요지였다. 능원의 조성과 능행(陵幸)으로 인해 조정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중국을 향하는 연행 사절 또한 이곳을 통과했다. 역대 중국의 사행 기록인 『조천기(朝天記)』와 『연행록(燕行錄)』을 토대로 파주를 관통하는 연행로를 요약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사행의 경로를 구성할 수 있다.

고양 벽제촌에서 혜음령을 넘으면 혜음석불이라고 하여 키가 수십 척이나 되는 쌍미륵을 만난다. 과거 개경과 남경을 잇는 중간 지점인 혜음령 쌍미륵(용미리 석불입상)은 고려의 대표적인 외척 세력이던 인주 이씨의 재력과 힘을 보여준다. 쌍미륵을 지나면 1656년(효종 7) 8월에 의승들이 돌을 깨고 장인들을 모아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꾼 광탄교(廣灘橋)를 건넌다. 그리고 곧 윤관 장군 묘가 나오는데, 사대부들은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가 다투며 오랫동안 송사를 벌인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는 마산역(馬山驛) 뒤의 고개를 넘어 저녁에 파주 파평관(坡平館)에 당도한다. 파주 관아의 청각루(聽角樓)와 관청 북쪽에 행궁(行宮) 등을 둘러보고 봉서당(鳳棲堂)에서 유숙한다.

다음날 파주를 이룬 새벽에 출발하는데, 그럴수록 임진강을 건너기 전에 율곡 선생의 자취가 묻어 있는 화석정(花石亭)을 찾아 즐기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을 건넌 후 동파역(東坡驛)을 지나 셋길로 해서 장단부(長湍府)에 도착하면 오목관(梧木館)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초현(招賢) 파발을 지나면 판부천(板浮川) 나무다리와 천수원(天壽院) 돌다리를 건넌다. 사천 나무다리를 지나면 개성에 이른다.

가상의 경로이긴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행사들이 이러한 경로를 밟아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행의 왕래를 통해 파주의 인사들은 중국의 문화와 사정을 전해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관심사나 형편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능원의 조성과 능행을 살필 차례이다. 파주에는 장릉, 공릉, 순릉, 영릉 등 모두 4곳에 능(陵)이 있고 소령원과 수길원 등 두 곳에 원(園)이 있다. 이중 순수한 왕릉은 장릉이고, 공릉과 순릉은 왕비의 릉, 영릉은 추존된 왕과 왕비의 릉이다. 원은 왕의 사친 묘소를 지칭한다.



화석정

장릉長陵은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데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仁祖와 그의 비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합장릉이다. 42세의 나이로 승하한 인열왕후 한씨는 한준겸韓浚謙의 딸로 효종과 소현세자, 인평대군, 용성대군의 4형제를 낳았다. 장릉은 원래 문산읍 운천리에 있었으나 인조의 능인 봉릉의 석물 틈에 뱀과 전갈이 집을 짓고 극성을 부리자 오랜 천장 논란 끝에 영조 7년(1731) 지금의 위치로 옮겨 합장하였다.

순릉順陵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韓氏의 능이고, 공릉恭陵은 예

종의 원비 장순왕후章順王后 한씨韓氏의 능으로 모두 조선 전기의 능이다. 공혜 왕후는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澮의 딸로 공릉의 장순왕후와 자매지간이다. 1467년(세조 13) 11세에 가례를 올렸고 성종 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으나 성종 즉위 5년(1474)에 자녀 없이 18세로 승하하자 이곳에 모시고 순릉이라 하였다. 공릉恭陵에 모셔진 장순왕후는 1460년(세조 6) 16세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고 이듬해 1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고, 1472년(성종 3)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공릉은 당초 왕후릉이 아닌 세자빈묘로 조성된 관계로 초석과 난간을 생략한 채 봉분 앞에 상석과 8각의 장명등을 세우고 좌우 양쪽에 문인석 2기를 세웠다.

영릉永陵은 조선 후기 능의 제도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진종眞宗 추존)와 그 비 효순왕후孝純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진종은 숙종 45년(1719)에 태어나 영조 즉위(1724)와 더불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영조 4년 10세로 세상을 떠나 시호를 효장이라 하였다. 영조 38년 영조는 둘째아들인 사도세자를 폐위한 뒤, 그 아들인 왕세손(훗날의 정조正祖)을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켰다. 효장세자는 정조 즉위 후 진종으로 추존되었고 능호도 올려 영릉永陵이라 하였다. 효순왕후 조씨는 풍릉부원군豐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딸로 영조 3년(1727) 13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다음해에 세자가 죽은 뒤 홀로 지내다가 영조 27년 37세로 세상을 떠나 왕후로 추존되었다.

소령원昭寧園은 영조의 어머니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원소園所로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에 자리 잡고 있다. 숙빈 최씨는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1670년(현종 11) 태어나 7세에 입궁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1694년(숙종 20) 창덕궁에서 영조를 낳았으며, 1718년(숙종 44)에 49세로 돌아갔다. 영조는 1725년(영조 1) 어머니를 위해 육상묘毓祥廟를 건립해 신관을 봉안하면서 소령묘로 부르



공릉(위)과 순릉(아래)

다가 1753년 육상궁으로 개칭하면서 원으로 승격시켰다. 수복방은 조선시대 원소 중 소령원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진입로 초입에는 숙빈 최씨의 신도비가 보호각에 보호되고 있으며, 영조는 1740년 특별히 인근의 보광사를 기복사로 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령원과 같은 영역에 위치한 수길원은 1701년 영조의 후궁이 되어 효장세자를 낳았던 정빈(靖嬪) 이씨(李氏)의 원소이다.

파주에는 또한 행궁이 있었는데, 현종 이후로는 임금이 행궁에 머무는 일이 매우 잦았다. 예를 들면 현종 8년(1842) 3월 10일, 현종 13년(1847) 2월 21일, 현종 13년(1847) 2월 22일(장릉), 철종 1년(1850) 3월 10일, 철종 5년(1854) 3월 10일, 철종 6년(1855) 8월 4일, 고종 9년(1872) 3월 1일(제릉과 후릉), 고종 9년(1872) 3월 7일 등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조선 중기 광해군 때의 교하천도론과 지리술사 이의신(李懿信)의 이야기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612년(광해군 4) 9월, 북인의 영수 정인홍의 지원을 받던 풍수가 이의신은 서울을 교하(交河, 지금의 파주시 교하읍)로 옮기자는 상소를 올렸고, 이는 교하천도론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의신은 상소에서 서울의 지기(地氣)가 다했음을 지적하고 임진왜란, 여러 차례의 모반 사건, 당쟁의 격화, 그리고 서울 근처 산림의 황폐 등을 증거로 들면서 새로운 길지인 교하로 도읍을 옮기자고 건의하였다. 교하가 강화도와 인접하여 전략상 유리하다는 것 외에 그의 논리는 대체로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에 관심을 가진 광해군은 1613년 정월 양사와 홍문관에 명하여 교하 지역을 답사하고 약도를 만들어 오도록 했다. 하지만 삼공을 비롯한 신하들이 이러한 계획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 그들이 교하천도론을 반대한 이유는 서울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천혜의 요지인 반면 평탄한 지형의 교하는 외적의 방어에 불리하고 많은 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식수, 연료, 재목의 조달이 어려우며 민심의 동요와 국고의 고갈이



소령원(위)과 수길원(아래)

초래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술사의 광탄한 말에 현혹되어 200년의 굳진한 터전을 버린다면 수많은 백성들을 일거에 떠돌이로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하천도론의 대표적인 반대자는 이정구와 이항복 등이었다.

이에 대하여 왕은 ‘천도가 아닌 이궁離宮을 지을 뿐’이라고 회유하였으나, 승정원·삼사 및 기타 관원들의 끈질긴 간쟁으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결국, 교하천도론은 광해군 8년(1616) 3월 24일 인왕산 아래에 새 궁궐터를 잡게 함으로서 중지되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뒤 사대부들이 파주 지역으로 묘역을 옮기는 등 사회적 여파가 적지 않았다. 또한, 조선 후기 인조의 장릉長陵과 순조의 인릉仁陵이 탄현면 갈현리 등의 파주 지역에 조성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다.

**울곡, 우계, 그리고 파주향약** 16세기에 들어 성수침, 백인걸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파주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지역의 향촌 사회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되던 사림의 영수 조광조의 문인들이었는데, 기묘사화로 그들의 이상이 좌절되자 낙향하거나 연고지를 찾아 은둔하며 수기修己와 학문에 힘쓰게 되었다. 성수침과 백인걸 또한 이런 이유에서 파주로 은거했다.

성수침은 처향妻鄉인 파주 향양리의 우계牛溪에 죽우당竹雨堂을 지어 정착하였고, 그 후손들은 조선 후기까지 이곳을 근거로 수백 년을 세거하게 된다. 백인걸은 외가가 교하 만우리萬隅里였고 처가 역시 파주, 교하 일대에 수만 경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안목安牧 가문의 후손이어서 일찍부터 월릉산 아래에 우거寓居하여 왔다. 사림의 향촌 활동을 특징짓는 향약이 다른 곳에 앞서 파주에서 시행된 것도 사실은 성수침과 백인걸, 그리고 그들의 영향 아래 후



일 조선 성리학의 큰 흐름을 이끈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파주를 터전으로 했던 탓이다.

수는 강항姜沆은 파산에 노나라처럼 어진 사람이 많다고 하였고, 숙종 대에 파주 유생들은 “파주 고을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추로라고 불렸다(坡州一邑素號我東鄒魯)”고 했다. 영남을 흔히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 하듯이 파주 또한 ‘조선의 추로’라는 지칭을 받았던 것이다. 파주가 조선의 추로가 된 데는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큰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살아서는 도학을 논하며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동지同志였고, 죽어서는 우율牛粟 또는 율우粟牛로 불리며 문묘종사文廟從祀의 명예를 함께 나누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불운 또한 공교롭게도 일치했다.

율곡 이이의 고향은 파평면 자운산 아래의 율곡리이다. 그가 8세 때, 5대조 이명신이 마련하고 증조 이의석李宜碩이 재건한 화석정花石亭에서 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그가 어린 시절 파주에서 성장했음을 알려준다. 물론 벼슬길에 나선 이후에는 서울에 머물렀고 35세 되던 해에는 처가인 해주로 살림집을 옮기기도 했지만, 율곡의 학문이 성장하고 꽃을 피운 곳은 파주였다. 이이는 청년기의 대부분을 파주에 머물며 성수침과 백인걸에게서 정암 조광조의 도학과 정치적 경륜을 배웠고 평생지기였던 우계 성혼과 교의를 나누었다. 그의 학맥과 유적이 파주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주요 저술인 『성학집요』, 『격몽요결』, 『학교모범』, 『경연일기』 등이 파주에서 구상되고 편찬됐다는 점에서 파주는 바로 ‘율곡학’의 산실産室이었다.

우계 성혼은 율곡과 더불어 파주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다. 그는 부친인 성수침을 따라 10살 때 파주로 왔고, 향리의 지명에 따라 우계牛溪로 호를 삼았다. 아버지인 성수침과 백인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는 64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평생을 파주를 떠나지 않았다. 윤두수, 윤근수, 정철, 심의겸



우계 성훈을 모신 사당(위)과 울곡 이이 신도비(아래)



같은 서울, 경기의 인물들과 최영경, 정인홍과 양홍주 같은 영남의 선비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는 높은 명망을 쌓았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 거처인 파주 우계에 서실書室을 열고 22조목으로 된 서실의書室儀를 짓기도 했다.

우울의 문인들은 대체로 기호 지역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장생, 이귀, 조현, 오윤겸, 윤항, 황신, 신응구, 정엽, 김권, 김집, 김류, 김상용, 신희, 강항, 이정구, 김육 등이 있다. 이들은 후일 퇴계 문인과 남명 문인을 주축으로 하는 영남학과와 비견되는 기호학파의 거목들로 성장하였다.

파주에서 향약이 제정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560년(명종 15)이다. 율곡 이이(1536~1584)가 25세 때 지은 파주 향약의 서문, 즉 『파주향약서』에는 당시 군수 변협邊協(1528~1590)이 밝힌 향약 제정의 시기와 배경이 적혀 있다. 놀랍게도 율곡은 불과 25세 때에 이 서문을 썼다고 하는데, 이 서문은 그 어느 곳보다 먼저 파주 지역에 사립적 향촌 질서가 수립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당시에 파주에서 이미 향약이 실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파주 지역의 경우, 향약이 실시된 것은 아마도 해주향약을 바탕으로 파주향약이 다시 만들어진 1693년(숙종 19) 이후였을 것이다. 파주향약을 다시 제정해야 했던 까닭은 1636년의 병자호란 때 향약이 유실된 탓이었다. 이에 파주의 유생들은 율곡 선생이 만년에 쓴 해주향약을 토대로 파주향약을 복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해주향약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향론에 있자 유생들은 현석 박세채를 찾아가 파주의 사정에 맞게 향약을 고쳐 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때, 현석은 해주향약이 거의 완전하므로 그대로 따라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해주향약과 동일한 파주향약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운서원과 파산서원** 우울을 중심으로 한 파주 사족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파산서원의 건립이다. 선조 원년 율곡은 통문을 내어 청송 성수침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초창기의 서원 운영은 매우 부진하였다. 그뒤, 20여 년이 넘도록 서원 영건 사업은 끝나지 않았고 위판 봉안마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도, 파주 지역 사림의 위세가 향촌을 주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청송과 휴암이 사림적 가치와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목사의 협력을 얻은 율곡과 우계가 향약을 실시하고 학문 활동을 통해 문인들을 양성하기는 했지만, 분산墳山과 별서別墅 등 훈척 기반과 정서가 남아 있던 파주의 향촌 분위기는 사림적 질서와 방식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듯하다.

파주 사족의 활성화는 율곡과 우계의 다음 세대가 활동하는 17세기에 들어서야 가능해졌다. 이이와 성혼을 배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추로지향을 자부했던 파주의 사족들은 그들의 학문 전통과 학풍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다. 더구나, 복인 정권 하에서는 율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고 우계의 경우에는 죄안罪案에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 남인의 5현 문묘종사 운동에 자극받은 서인계는 자신들의 학문적 연원인 율곡과 우계를 현양하고자 하였고, 이는 광해 7년의 파주 자운서원 건립으로 나타난다.

토착 기반이 더 강했던 우계의 문인들은 이보다 앞서 서원 건립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파산서원의 재건 논의를 통해 가시화됐다. 이때의 논의에서는 청송, 우계 부자뿐만 아니라 휴암 백인걸과 율곡까지 포함하여 추로지향으로서의 파주를 대표하는 이른바 ‘파산 사현坡山四賢’을 함께 제향하자는 방안이었다. 이는 파주를 추로지향으로 표방하는 동시에 일음일원一邑一院의 원칙도 지킬 수 있어 당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지운서원



자운서원 모형비

하지만 우선 우계에게 혐의를 둔 집권 세력은 제향을 반대하고 있었고 청송(淸松), 휴암(休庵), 우계 3인과 율곡을 함께 제향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 청송, 휴암의 학문적 성향이 율곡계의 반론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제향을 한다 해도 위치(位次)를 어떻게 하느냐가 논란거리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율곡서원의 별도 건립을 주장한 정엽 등의 논의를 좇아 사계 김장생의 주도로 자운서원이 먼저 건립되었다.

물론, 자운서원의 건립은 앞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었지만 그뒤로도 파산서원은 쉽게 중건되지 못했다. 파산서원은 서인이 집권하고 우계의 신원이 이루어진 인조 6년(1628)에야 청송, 우계 부자만 봉안한 채 중건될 수 있었다. 뒤에 휴암도 잠시 파산서원에 이안되긴 했으나 끝내는

위차 시비에 휘말려 분기되고 말았다.

자운서원과 파산서원은 효종 원년에 국가의 사액을 받는 등 각기 그 제향 인물의 학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기능하였다. 하지만 자운서원은 파주 지역에서 파산서원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못 위축된 모습이 었다. 이에 우암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 노론계는 낡은 자운서원을 호명산 아래로 이전, 중수하면서 쌍묘(雙廟)를 두어 율곡 이외에 휴암 백인걸도 제향하게 했다.

자운서원의 이전은 다시 한 번 파주사현의 합향 문제를 거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파산서원 측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파산서원

보였다. 송시열이 직접 나서 파산서원의 대표격인 윤선거와 문제를 상의하기도 했지만 위차 문제로 인해 결국 논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때, 이른바 호서오현湖西五賢인 송시열, 송준길, 유계, 이유태, 윤선거와 박세채, 윤증 사이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절충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윤선거가 제시한 5개 방안 중 하나로 귀일하는가 싶었으나, 박세채의 반대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게다가, 윤선거의 묘비문 문제로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틈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회니懷尼시비로까지 확대되어 노론, 소론 분립의 당론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합향 문제는 이후 더 이상 거론되지 못하였다.



파산서원 제향 모습

자신이 추진하던 사헌 합향과 서원 통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송시열은 자운서원을 거점으로 하는 자파 세력 부식에 힘쓴다. 그는 율곡 신도비문을 지어 숙종 9년 자운서원 묘정비로 세우고, 현종 14년(1673) 해주에 살고 있던 율곡의 후손들을 불러들여 서원 관리를 맡기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시킨다.

그러던 중, 숙종 10년을 전후하여 남인 처리 문제를 놓고 송시열(군자소인론)과 박세채(황극탕평론)가 대립하는 일이 벌어진다. 박세채가 황극탕평설이 율곡의 조제보합론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율곡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천명하였던 탓이다. 비슷한 시기인 숙종 13년, 박세채는 광탄의 남계에 우거하면서 서당을 짓고 문도를 양성하였다. 또한 때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운서원을 찾아 파주 일대의 사람들에게 강학을 베풀었다(『남계선생속집

南溪先生續集』, 권 19, 자원원규齋院規). 이런 그의 활동은 수십 년간 자운서원에 공을 들인 송시열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자운서원이 송시열계의 노론 서원으로 좌정하지 못하게 했다. 박세채가 숙종 21년 자운서원에 올곡과 병향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암 송시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운서원에서 노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특히 박세채가 병향되는 사태가 야기되자 노론 세력은 이에 반발하면서 숙종 33년에 병향을 배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박세채의 문인들은 병향을 바꾼다면 박세채 제향서원을 그가 강학하던 파주 남계에 별도로 건립하겠다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여기에서 사계 김장생의 추배론 道配論이 나오는데, 이는 박세채 강배降配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다시 박세채의 문인들은 크게 반발하여 ‘서원이 유생들의 싸움터가 되는學宮爲鬪鬪之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제향 위차 시비는 1713년 김장생 추배와 박세채 강배를 조정에서 허락함(『승정원일기』, 숙종 39년 4월 20일)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니었다. 박세채의 문인들이 박세채 강배 처분의 재고를 요청하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 남계에 별도의 제향서원을 건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론 정국에서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파주 지역은 영조 이후 노론계 사림의 본거인 자운서원과 소론계의 본거인 파산서원이 서로 공존하는 형세를 보였다.

**조선 후기 파주의 경제**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서는 파주 지역을 서교西郊로 지칭하고 있다. 교의 역할은 도성을 방위하는 것과 물자 수급을 원활히 하는 데 있었고, 사실 파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1000여 년

동안 개경과 한성의 교역 지역으로 역할하며 도성의 보호와 보급을 맡아왔다. 하지만 수운·육운 교통이 편리하고 산물이 풍부하며 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의 경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성과 같은 대상권이 인접해 있던 데다 도성의 물자 수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물류유통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파주가 도성과 경기 서북 및 관서 지역을 이어주는 상업 중심지로 부각된 것은 상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물산의 이동이 확대된 17세기 이후였다.

파주 지역 장시의 발달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임진강의 수운에 주목해야 한다. 임진강은 연천·파주를 거쳐 한강과 합류되었는데, 배가 운항할 수 있는 가항 거리가 80km에 달해 연천의 도감포와 유진(楡津)을 경유하면 멀게는 황해도 토산 하구까지 선박이 드나들 수 있었다. 20세기 초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임진강 하구에서 고랑포까지는 400석 분량의 곡식을 실은 선박의 운항이 가능했고, 도감포를 지나 연천의 전곡까지는 적어도 60석 규모의 소규모 선박이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조선 하천 조사서(朝鮮河川調査書), 조선총독부, 1929)”고 한다. 이처럼, 임진강은 관서 지역과 근교 지역을 연결해 주는 중계지의 역할을 하며 물류 유통의 근거지로 성장해 나갔다.

수운 교통의 발달과 함께 조선 후기에는 육상 교통로도 개설, 정비되기 시작했다. 파주를 관통하는 의주로는 도성과 중국을 연결하는 사행로이자 관서 지역과 도성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었다. 따라서 이 길을 통한 관인과 행인들의 왕래가 잦았으며 물자의 이동 또한 빈번했다. 정비된 도로는 행정 중심지와 군사 요충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상품 유통로로까지 발전하였다. 더구나, 파주는 시전의 금난전권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도성의 사상 도고들과 연계하며 상업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군사 시설이 있는 임진나루 입구(위)와 1872년(고종 9) 지방지도 속의 임진나루(아래)

이러한 파주의 장시는 입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수운의 활용을 위해 포구에 입지한 형태로 파주의 문산포장, 장단의 고랑포장·이장포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록 포구는 아니지만 임진강의 중소 하천에 개설된 장단의 사천장·사미천장, 적성의 두일장, 교하의 신화리장 등도 유사한 성격의 장시이다.

둘째는 사행로인 의주로변의 주요 지역에 입지한 형태로 파주의 원기장·광탄장, 장단의 판문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장시들은 주로 개성 상권과 연계하며 성장했는데, 특히 광탄원 자리에 있던 광탄장의 경우는 역과 원의 기능이 쇠퇴해 가던 시기에 개설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행로의 지선에 위치하며 장과 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장시들도 있다. 교하의 삼교장, 눌노장과 장파장, 또한 적성의 오목천장, 입암장, 남면 발운장 등이 그것이다.

셋째는 관부<sup>官府</sup>의 영향력이 미치는 읍치, 능침 부근에 입지한 형태로 조리읍의 봉일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시들은 관권과 결탁해 장시를 발전시켜 나갔다. 예를 들어, 파주읍내장과 봉일천장의 경우는 담배 등을 매점하는 파주 상인의 근거지였다.

이와 같은 파주의 상업은 지역 내에 상품을 유통시키는 동시에 관서 지역과 서해안의 산물을 도성으로 증계하는 역할을 하며 발전했다. 개항 이후에도 파주에서는 수운과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상업 활동이 지속되었다. 파주의 장시들은 경기 동북의 누원점·송우점, 동남의 송파장, 남부의 안성장 등과 더불어 도성과 경기 지역의 물류 유통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조선 시대의 능원 역시 파주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능원은 그것의 선정 및 조성 과정에서 지역민과 무관할 수 없고, 특히 왕의 능행은 조정 및 왕실과 파주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고리였다. 실제로, 파



화평옹주와 박명원의 묘

주 지역민들은 능원의 조성 때 조묘군造墓軍으로 징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산 수호까지 담당했다. 또한 능행이 있게 되면 어로나 능원 부근의 마을민들은 기수패旗手牌나 기패군旗牌軍으로 동원되어 깃발과 의장을 맡아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평상시에 왕실의 능위토陵位土와 둔토를 경작하며 살았다. 능, 원, 묘의 위토가 죽은 왕과 왕실을 위한 것이라면 둔토는 살아 있는 왕족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더불어, 왕들은 능행과 관련한 민폐에 대해 이를 무마하고 위로하는 조처들을 취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1694년 10월 19일에 공릉에 능행한 숙종은 좌의정 박세채의 건의에 따라서 경오년(1690)과 임신년(1692) 두 해의 바치지 않은 조적곡을 감해주었다.

또한, 영조는 1731년 5월 17일에 경기 백성 및 교하 백성들에게 윤음을 내려 능원 조성으로 인해 고통 받은 교하 백성들에게 은전을 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은 2150냥을 내리니, 1000냥은 교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옮기는 비용을 돕고, 1000냥은 경기도에 주어 천봉遷奉하는 역을 도우며, 150냥은 교하현에 주어 관사를 뜯어다 옮기는 비용으로 쓰라”고 하고 있다. 정조도 파주에 능행하던 1789년 2월 13일에 부모들을 접견하고는 조세의 절반을 감해주고 임인년(1782), 계묘년(1783) 이전의 묵은 환자곡을 탕감해 주는 특혜를 베푼다.

특히, 영조는 파주 능행과 관련해 남다른 인연을 지니고 있는 왕이었다. 파주에는 영조의 사친 원소인 소령원과 후궁인 정빈 이씨의 수길원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했던 셋째 딸 화평옹주의 무덤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1731년(영조 7) 8월 17일, 1744년(영조 20) 7월 21일, 1745년(영조 21) 8월 11일, 1745년(영조 21) 8월 21일, 1749년(영조 25) 2월 8일, 1752년(영조 28) 1월 30일, 1753년(영조 29) 9월 10일에 능행을 왔던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 임금의 능행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자제를 하곤 했는데, 파주에는 인조의 능인 장릉이 있던 덕분에 이를 계기로 나머지 원묘에도 들를 수 있었다고 한다.

**파주의 항일운동** 구한말 의병 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면서 더불어 낡은 봉건 체제를 극복하려던 반일 반봉건 민족운동이었다. 이러한 반일 의병 항쟁은 1895년 일제가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와 갑오 친일 정권의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봉건 유생 중심의 ‘초기 의병’ 과 1905년 을사조약 앞뒤로 일어난 ‘후기 의병’ 을 일컫는다.

경기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또한 정치적 변화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임진강을 끼고 있는 파주 지역은 경의가도의 관문이자 요충지였다. 파주를 비롯하여 장단, 적성, 교하, 풍덕 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임진강 유역 일대는 강화를 중심한 서북부 지방과 경원가도의 관문인 양주를 중심한 삭녕, 철원 등의 동북부 지방과 함께 당시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항일 의병 운동의 주요한 격전지였다.

경기지방의 의병 운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는 1907년 8월의 군대 해산 이후다. 의병 운동의 발단기에 파주 지방은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독자적인 의병 부대가 없었다. 하지만 장단, 양주, 파주, 연천 등지를 잇는 임진강 유역은 여러 의병 부대들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주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 시기의 임진강 유역 의병 활동 중 주목되는 것은 김수민 부대이다. 동학 농민군 출신인 김수민은 1907년 8월 25일(음력) 장단군 북면 고량포에서 근방의 농민과 보부상 2000명을 모아 대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개성군 대홍산 창고에 있던 정부 소유의 대포 30문, 소포 150문을 탈취하여 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고는 11월 개성 수비대를 습격하고 부호들의 재물을 빼앗는 등 여러 차례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908년 1월 ‘서울 진공 계획’이 실패한 뒤 양주에 집결하였던 13도 창의군의 주력 부대 또한 파주 지역의 주요 의병 부대였다. 이들은 원래의 봉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와 연합하여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펼쳤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세 개의 의병 부대가 활동하였다. 풍덕·교하·파주를 잇는 파주의 서남부 지역은 원수부 좌군장인 정용대 부대가, 파주를 중심으로 적성·양주 등지는 원수부 우군장인 윤인순



3·1운동 발상비, 광탄면사무소 내

부대가, 장단·연천·마전·금천 등의 파주 동북부 지역은 원수부 선봉장 김수민 부대가 활동하였다. 김수민 부대는 때때로 인근 부대인 양주 지역의 이은찬, 장단·연천 지역의 연기우 부대와 연합하기도 했다.

박도 두령으로 알려진 윤인순은 일본군과 계속 투쟁하면서, 1908년 10월 파주 등지의 일진회원들을 처단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그는 부족한 군수 물자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일제의 경제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친일 자산가를 습격하는가 하면, 각 면·동에 세금을 정부가 아니라 의병에게 직접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는 면·이장에 있으면 반드시 응징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1909년 3월 일제는 양주 관내 헌병과 상비 수비대, 그리고 용산 수비대 1대대를 포함하는 300여 명의 토벌군을 동원하여 임진강 유역인 양주·포천·적성·파주 등지에 대한 대토벌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주요 의병장들이 체포, 처형되면서 의병 운동은 점차 침체하였다. 월등한 화력을 앞세운 일제의 무자비한 침략과 토벌로 인해 좌초되고 만 것이다.

파주 지역의 의병 운동은 을사조약 전후로 더욱더 깊어진 일제와의 민족 모순을 배경으로, 통감정치 아래 진행된 조선 사회의 식민지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그리고 임진강 일대에서는 투철한 저항정신을 가진 의병장들이 활약했다. 파주는 의병 활동을 “죽어서 그칠 결심이다”라고 하던 김귀손이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누세에 욕을 당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짐은 천추의 한이라” 여겼던 정용대처럼 기백 있는 의병장들이 활동하던 경기 의병의 중심지였다.

한편, 고종 때 내시였던 승전색承傳色 반학영潘學榮은 을사늑약에 충격을 받고 사직한 뒤 파주 교하의 심학산 언저리에 은둔하였다가 일제의 병탄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하여 삼교시장에서 입에 칼을 물고 자결하였다. 일설에는 배를 갈라 자결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20년 뒤, 그의 동료들은 묘소에 비를 세우고 비문을 새겼는데 이를 보면 반학영의 인물 됴됨이를 잘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의 충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파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으로는 장명산 사건을 들 수 있다. 탁지부 주사로 있다가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후 야동리에 돌아와서 있던 김사열은 1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송헌섭의 집에 모여 일제에 의해 초대 교하군수로 부임한 윤기섭을 화형에 처하자고 결의하였다. 곧 “집집마다 한 명씩 장작 한 개를 가지고 장명산으로 집합하러”는 사발통문을 돌려졌다. 하지만 이 일은 중간에 탄로가 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장명산 사건은 나라를 빼앗긴 을

분으로 가득한 파주 군민들의 대대적인 항일 봉기였다.

파주의 3·1운동은 3월 10일 와석면(현 교하읍)의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임명애(林明愛)가 주도한 이날 교하리 보통학교 시위는 오전 9시경 그가 운동장에 모인 1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3월 25일 김수덕, 김선명 등이 임명애의 집에서 “오는 28일 동리 산으로 모이라. 집합치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하겠다”라는 결연한 내용의 경고성 격문을 60여 장 인쇄하여 와동리, 당하리, 다율리, 구당리, 문발리, 오도리 등지에 배포하였다.

3월 26일, 교하리의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은 모여든 남녀노유 7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교하면사무소로 시위 행진하면서 면서기 박, 김 2명에게 직무를 보지 말고 시위에 동참할 것을 통고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일제의 헌병들은 시위 행렬에 대하여 무차별 발포를 퍼부었다. 그 자리에서 최홍주(崔鴻柱)(1891~1919)가 사망하자 이에 놀란 군중은 해산하였고, 주동자들은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같은 날, 주내면, 임진면, 진남면에서도 만세 시위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어 3월 27일에는 청석면 심학산에서 광탄면 발랑리를 거쳐 조리면에서만 2000명이 합세하는 격렬한 대규모 만세 시위가 펼쳐졌고, 이는 봉일천 장날의 만세 시위로 이어졌다. 이날 일제의 헌병들은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한 발포를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박원선 등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이날의 시위는 군내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격렬하였다.

파주의 3·1운동은 그 전개 과정에 있어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만세운동 초기에는 서울의 영향을 받아 지역 지식인과 학생 계층에 의해 항일투쟁이 선도되었으나 점차 농민이 중심이 된 대부분의 지역 군민이 전면

나서 치열하게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둘째, 처음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학도가, 권면가 등을 부르면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지역보다 더 공격적인 만세 시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장날 등 군중이 많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이용한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봉일천 만세 시위의 경우처럼 다른 지역 시위대가 원정을 와서 시위대에 합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치열한 3·1운동의 과정에서 일경에 체포되거나 희생당하는 주민들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확인된 것만 피검자 21명, 사망자 10여 명에 이른다. 파주는 서울의 상황을 타 지역보다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여건이긴 했지만, 중앙 조직과 연결된 선도적 조직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군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3·1운동을 전개하였다.

**미래의 도시 파주** 1950년 6·25전쟁 발발 하루 만에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서울이 함락됐다. 파주에서 선전하던 국군 제1사단도 한강을 도하하여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미처 후퇴를 못한 국군 일부가 감악산에서 유격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경의선 통학생이 중심이 된 태극단·두만동 결사대 등이 반공 투쟁을 펼쳤으나 파주는 이후 10월 1일 유엔군이 진주할 때까지 96일간 인민군의 점령 아래 있었다.

인민군은 인민위원회와 민주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등의 조직을 만들고 토지 개혁과 의용군 모집, 우익 인사의 숙청 등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활동을 하였다. 9월 중순 이후,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질 것을 감지한 인민군은 파평면 두포리, 임진면 마정리, 문산역 북쪽 장터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했다.



38선을 넘어 후퇴하는 유엔군 차량들(1950. 12. 8)

1951년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에게 유리했던 전세가 다시 역전됐고, 그해 12월 31일 중공군이 일제히 38선을 돌파하면서 파주 지역은 중공군에 의해 점령된다. 하지만 경기 남부까지 후퇴했던 유엔군의 반격으로 3월 15일에는 서울이 탈환되고, 3월 23일에는 국군 제1사단에 의하여 파주가 수복되었다. 이후, 4~5

월에는 전선이 파주 북방 임진강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가 휴전을 맞게 된다.

6·25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상흔이 하나둘 아물던 1960년대에 파주에는 대규모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게 된다. 미군의 주둔은 전통적인 농촌 사회였던 파주에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하였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의 미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그들과 관계 맺으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파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파주에 ‘용주골’로 상징되는 소위 기지촌 문화가 형성된 것도 바로 그때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69년 주한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1971년 문산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옮겨가면서 기지촌은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다.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면서 파주는 남한의 북쪽 끝이 되었다.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파주는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변방의 농촌 마을로 남겨진다. 그러던 중, 1972년 3월 통일로가 개통되자 실항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관광지와 유원지 등이 개발되었다. 통일로 개통 이후 다시 20년, 이제 파주는 서울의 변방에서 벗어나 산업 도시, 미래 도시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92년, 고양에는 일산 신도

시가 탄생했고 파주에는 산업 관문이 되는 자유로가 준공되었다.

파주가 도시화·산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고, 공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일산 신도시 개발 이후,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던 중소기업들은 대거 파주로 몰려들었다. 파주의 중소기업은 1991년에 470개였던 것이 1996년에는 695개가 될 만큼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도 파주의 산업 발전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 비록 공장의 수는 증가했지만 그것이 파주의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파주의 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은 1990년대 후반이다. 자유로 개통 이후인 1994년, 그동안 지역 개발을 가로막았던 수도권 정비계획이 개정되고, 김포와 함께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파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또한 1995년 7월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1996년 3월 1일에 도농복합시로 개편되면서 파주 역시 경기도와 연관해 자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에 발행된 「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에는 파주를 서북 해안권의 중심 도시로, 향후 남북 교류 중심지로, 반도체·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구축 지역으로 성장시킨다는 발전 전망이 담겨져 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 남북 물류기지를 파주에 건설하고, 향후 통일관광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로를 기본 축으로 하는 통일관광 벨트를 형성하는 한편, 세계 유일의 이데올로기 대치점이라는 점에 착안해 통일동산·판문점·임진각 관광지를 국제적인 안보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 방향은 지방자치제 이후 파주시가 수립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 모델과도 같은 것이었다. 당시 파주시가 구상한 21세기 도시 이미지는



하늘에서 본 자유로



환경 친화적인 전원·문화·관광 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통일 시대에 대비한 남북 물류거점 기능,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청정도시 기능,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 관광·문화 중심 기능,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들은 2000년을 전후해 구체화되었다. 1994년 문발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후,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파주 출판문화정보 단지와 파주탄현 중소기업 전용단지 건설 계획이 발표된다. 1999년에는 오산과 금파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2003년 이후 파주의 미래를 짊어질 디스플레이 단지와 문산과 월롱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잡혔다. 특히 디스플레이 단지 조성에 관한 노력은 빠르게 진행돼 2003년 2월 경기도와 파주시, LPL(엘지 필립스 엘시디)이 월롱 지역에 약 51만 평 규모의 LCD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파주에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온 건 신도시 개발이다. 1998년과 1999년에는 파주시의 중심지인 금촌 지역에 약 1만 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문발과 동패리에 1만 세대 이상의 교하지구 아파트 단지 건설이 이루어졌고, 2003년부터 시작된 교하신도시가 완성된 뒤로는 약 8만 세대의 인구가 입주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중이다.

2008년 초에 발간된 파주시 통계연보에는 파주시의 인구 증가 추이와 사업체 수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파주시의



LCD 산업단지 전경



인구는 1990년대 말까지 17만 명 내외이다가 2000년 이후 20만 명을 넘어서고, 다시 2006년에는 마침내 3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2008년 오늘, 파주시의 비전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전략 2010’이라는 시정운영 기본계획 아래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 건설, 시민주의 행정’이라는 4대 지표를 설정하고, 14대 주요 과제와 10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산업사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역시 최첨단 도시이다. 최첨단 도시의 기본 요소는 도시 환경과 산업, 그리고 이를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 1996년 3월 도농복합시로 개편된 이래 이런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금촌과 교하를 중심으로 도시 기반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현재는 U-City라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희망의 도시이다. 남북의 긴장 완화와 통일을 염두에 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과 가깝고, 도로교통의 개선으로 수도권 및 물류 거점인 인천·김포에 접근이 용이하며, 특화된 첨단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파주는 “꿈을 꾸다.” 정보화시대를 리드하는 첨단 생산기지와 기술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교하신도시 신경



현재 파주시에는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인 LCD 디스플레이 단지와 출판 문화정보 단지가 있다. 디스플레이 단지는 파주시는 물론 경기도 내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산업 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 156만  $m^2$ (약 47만 평)에 27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출판문화정보 단지는 단일 출판단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더구나, 파주는 지난 50년간 사람의 별로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파주는 미래도시가 추구하는 이상형의 상징 도시로 최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고품격 도시로 거듭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